

사설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측면이란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선거답게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속에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이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갈거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 정치의 후진성은 물론 민족적 동질성 형성에 심각한 우려감을 던져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부와 정당은 물론 일반국민까지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른 원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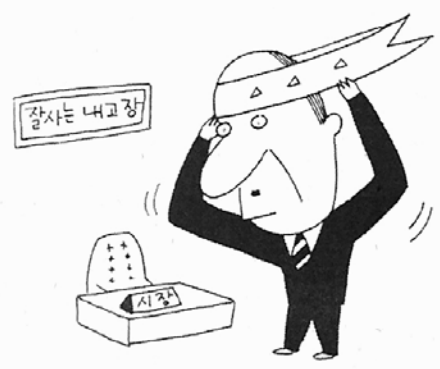
에 힘입었음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분할주의의 기반 위에 내각제도의 개혁이 시도된다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정치체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데는 바라던 바일지 모르나,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은 자신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었다거나, 낙선되었다는 데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갈라진 이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선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지역분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큰 정치적 구축하는 움직임이 태동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정파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모임이어서는

지역화합 우선하는 정치

가장 먼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마음을 잡지 못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역갈거주의가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지려면, 정부는 지역에 안주하는 정치를 펴는 인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제대로 해야 했다. 정부가 개혁의 공신력을 잃어버린 것도 큰 후이었다. 정 부가 보수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이제 분명히 개혁의 길을 선택하고 불을 바꾸며, 세대교체 앞장선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승리로 이어졌든 패배로 끝났든간에 지역분할구도

인되며, 과거 지향적 정치를 배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를 지지하는 모임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적 차원과 더불어 생각할 때 모든 국민이 마음속의 편견이나, 대립 반목의 잘못을 참회하는 속죄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이며, 정보화시대이다.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대립과 투쟁을 집단적 경쟁으로 제도화하는데 성공한 20세기와 대조적으로 대립적 요소는 다양성의 공존으로, 투쟁은 조화로 전화시키는 것이 21세기적 질서이다. 지역갈등을 지역적 다양성으로 승화하여, 민족적 화합을 이룰 때 우리민족의 21세기적 발전과 통일이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승리로 이어졌든 패배로 끝났든간에 지역분할구도

현대 만평 박구원



어깨띠를 머리에 매고...



◇ 지난달 23·24일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된 경승단 연수회에는 2백30여명 경승이 참석해 경승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했다. 사진은 경찰과 경승이 함께 모여 법회를 모행하는 모습.

열린 마당

87년 경승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훨씬 이전인 79년부터 지금까지 좋은 경승활동을 해왔지만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고,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승은 말그대로 경승활동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주변의 모든 것을 폭넓게 감싸고 이해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원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큰 원력을 가지고 경승활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멈추거나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지역에서 경승을 후원해주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암연합회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종단이나 중앙경승단의 관심과 협조부족이다. 경제적 후원이 어렵



자우성님

“지역사암과 협조체제 구축 위상강화 모색을”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승자체에 대한 위상강화적인 측면에서 종단이나 중앙조직의 홍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시대와 제도·사회구조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경승의 역할 또한 지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군·구 단위로 연합체를 결성해 총원력을 가지고 경승활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멈추거나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경승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경승의 원력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경승 활성화

경승연수회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흐뭇했다. 진작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승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축하할 일이다. 경승은 한마디로 이 사회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의 포교야말로 진정 불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승은 그 위상과 위치에 걸맞는 활동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재정적인 문제와 경승의 상호교류, 경승단의 효율적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그 중요성마저도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승은 우선 범죄자들과 그들을 대하는 경찰직원들을 정서적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리고 경찰가족을 비롯해 그



김종규씨

“사회 어두운 구석 어루만지도록 후원 확대돼야”

지역 주민들과도 자주 접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승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경승스님들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교화와 불법포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담당 경찰서는 물론 지역 복지사업에도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각 경찰서 경승들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그래서 상호방문을 통해 해 담당 경찰서는 물론 지역 복지사업에도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경승후원회를 맡고 있는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바깥마음을 표하며, 이번 경승연수회야말로 그런 기쁨을 다지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서 보다 다양한 포교활동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 (경찰청 경승후원회장)

(경찰청 경승후원회장)

지난달 23, 24일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된 대한불교 경승단 연수회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전국의 2백30여 경승들이 참가한 가운데 바람직한 경승 활동방향이 모색됐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7년 경승단 창립일에 첫 연수회가 열린 후 8년간

우선 경승에 대한 개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식부족, 경승인원 부족과 재정여건 열악, 지역별 지단을 통한 조직체계 미흡, 종단의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해결책 또한 참가 경승들간의 상당부분

요수로 꼽혔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경승활동을 위한 재정충당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승법회시찰 신도회장이나 총무 등을 참여시키고, 경승활동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이 대상으로 경승에 대한 이해를

경승단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현재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담당직으로 경승단장직을 맡고 있고, 중앙 경승단 업무는 포교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승단 연수 취재기 재정확보·조직정비·프로 다양화 ‘한 목소리’

에 모처럼 개최된 87년 경승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비판과 활성화 방안이 시종 열띤 어조로 논의됐다. 특히 각 지방별 12개 분과로 나누어 ‘경승활동의 구체적 실천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승들이 경승활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공통된 인식하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승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를 높이고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승스님의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자성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또한 경찰직원과 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다양한 접촉 등이 경승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노력과 동시에 후원회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른 경승인원의 확충 또한 재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조직적 활동을 위한 정기 모임의 필요성과 지역 사암연합회와의 유대강화, 중앙 경승단의 경승실 설치 지원과 각 지단의 월말보고서 활용, 경승단 활동지침 마련 등 중앙

점으로 제시된 조직정비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제 2차 경승단 연수회는 불교의 대사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승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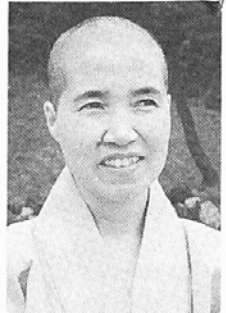
활동 모범 사례

성북서, 법우회 구성 봉사 전력

전국 2백51개 경찰서 가운데 경승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1백20여곳. 그중 모범적인 경승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로 성북경찰서(경승실장 원운스님)를 꼽을 수 있다. 성북경찰서는 현재 6백30여명의 직원중 1백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법우회’라는 신형단체를 중심으로 매일 정기법회와 전·외경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청소년 윤리대 등을 위한 선도법회, 유치장 위문법회와 각종 기원법회, 경찰관 포교법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주지스님 13명이 경승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양적으로도 모범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성북경찰서는 이외에도 경찰 개인상담과 경찰관자녀 장학금 지급, 성지순례법회, 파출소 위문, 불서도서관 운영, 경찰의 날 행사, 6.25전몰 경찰 합동유령제 등 다양한 포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터뷰

비구니경승 상덕스님



“경승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승스님의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바로 전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87년 경승제도가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좋은 경승활동 한 곳에서 경승활동을 해 온 상덕스님(정수암 주지)은 경승단의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로 잘 짜여진 경승단의 조직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다. “홍보나 경승활동의 범용성만이 라든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조직적 후원과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외경들이나 윤리대,

“봉사원력 세워 부처님 법 전하죠”

재소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포교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적체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중앙 경승단의 다양한 지원 못지 않게 재정을 충당해 줄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일 정기법회는 물론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때 불우한 이웃과 경찰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덕스님은 “불교를 현대사대에 맞게 접목시킨 설득력있는 포교프로그램이야말로 불교가 자신감을 갖고 경승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불교 성순 교지례

■ 여행조건 ●호별: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출발: 7월 24일, 8월 28일  
●동참금: 295만원  
●일정: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둔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문자랍고개-혼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타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출발: 7월 21일, 8월 25일  
●동참금: 188만원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둔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출발: 7월 23일, 8월 27일  
●동참금: 210만원  
●일정: 서울-상해-성도-라사-장케-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발: 8월 4일  
●동참금: 11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그리야-폴론나루와-덤프라-캔디(불치제)-콜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 8월 29일, 9월 19일  
●동참금: 195만원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사굴)-충안 소림사-정주-대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장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출발: 7월 15일, 7월 29일  
●동참금: 100만원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 사원-  
●출발: 7월 23일, 8월 27일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출발: 8월 20일, 9월 20일  
●동참금: 65만원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츠 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